

# 開放農業下에서의 農村 및 農業教育體制 活性化 方案 研究

이양수\*, 김재기\*, 이상래\*\*, 강대구\*

(\*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 일본 동경농업대학)

## A Study on the Activating Strategies for Rural and Agricultural Education System under Free Agricultural Product Trade

Lee Yang-Soo\*, Kim Jae-Ki\*, Lee Sang-Rae\*\*, Kang Dae-Koo\*

\*Dept. of Agricultur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uncheon Nat'l Univ., Suncheon 540-744, Korea,

\*\*Tokyo Agricultural College, Tokyo, Japan

### Abstract

The objectives were to find the activating strategies for rural education and agricultural education system under the free agricultural product trade era, especially GATT system in Uruguay Round. For this study, Delphi method by 20 experts in agricultural education, rural sociology, agricultural policy, agricultural economics sectors, and related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from samples composed of the 100 principals in primary and secondary rural/agricultural schools, the 100 regional supervisors of rural extension service centers, the 100 regional superintendents of schools were adopted. Through the study, the structural changes of rural and agricultural education system under the free agricultural product trade era were investigated and recommended the strategies for activating the rural and agricultural education systems in this era.

### I. 서 론

#### 1.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이 연구는 최근 UR로 대표되는 각국의 보호 무역 주 의와 그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농업 개방 압력 시대하에서 적응을 요구받고 있는 농촌과 농업에 있어서 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방향 모색에 중점이 있다. 최근 농업에 불어닥친 여러가지 상황은 농업 종사 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만 아닌 농업 종사에 대한 의욕 저 하로 인한 농업 포기의 가능성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농 촌에 있어서 인력의 감소는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와 취학

생들의 감소를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농업 분야의 교사 들은 교직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고, 신분의 불안정으로 교육의 충실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농촌 지역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 희망자마저도 거 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비단 농업 교육에 국 한된 문제가 아니라 농촌 지역의 학교에 불어닥친 현상이 다. 학생수 저하로 인하여 학급수가 줄어들거나 분교등의 폐교가 일어난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폐교로 인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 와같은 체제하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 過少化와 그에 따라 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을 어떻게 대처하여 농촌 교육의 질 적 개선과 농업 교육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가의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

## 2. 研究 內容 및 範圍

이 연구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 시장 개방의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 교육에 미칠 영향 추정

나. 농업 시장 개방후에 요구될 농촌과 농업 인력의 수준과 내용 파악

다. 농업 시장 개방후의 농촌과 농업교육에 있어서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

## 3. 研究의 制限

이 연구는 농업과 농촌 교육에 대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미치게 될 영향을 추론하는데 있으나, 교육을 학교 교육과 농촌 사회 교육으로 구분할 때 상대적으로 농촌의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으므로 확대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 4. 用語의 定義

가. 개방농업: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대표되는 완전 자유 경쟁하에서 농산물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태의 농업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이와같은 상황은 UR의 통과로 인하여 해외 농산물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상태를 말한다.

나. 농촌 및 농업교육: 농촌이라는 지역적 상황과 농업이라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범위를 가진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하며, 실제적으로는 농촌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촌지도소등에서 농민이나 농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말한다.

다. 교육체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모든 형태의 조직 및 그 조직들의 활동 내용을 말한다.

라. 활성화: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말하며, 여기서는 농업교육과 농촌 교육이 활기있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 5. 研究의 方法과 節次

이 연구는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델파이 기법)과 문헌 조사, 설문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가. 전문가들의 자문(델파이 기법): 농업의 변화에 대한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농업 경제 분야와 농촌 사회 분야, 농업 정책 분야, 농업 교육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 별로 5인씩 20명을 위촉한 후 농산물 시장 개방후에 나타날 농촌 및 농업 교육의 변화 양태와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1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연구진과 별도로 6~7명의 소규모 패널을 구성하여 3회 정도 협의하였다. 또한 일본의 농업계 학교 교사 등 해외전문가를 5명 위촉하여 협의하였다.

나. 문헌 연구: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무역진흥공사등의 보고서와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고찰하였다. 각국의 UR에 대한 대응 방향의 탐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해외문헌 정보서비스(AGRIS)와 데이터통신의 천리안 NETWORK를 이용하여 해외농업정보와 경제정책정보를 검색하였다.

다. 조사 연구: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 책임자(농촌지역 학교 및 농업계 학교의 교장, 시군교육장, 농촌지도소소장) 각 100명씩 300명을 무선으로 표집하고, 이들에게 일반문항 4문항, 현재의 농촌 및 농업교육의 문제점 1문항, 농산물 개방하에서 나타날 현상을 묻는 질문 3개, 농산물 개방하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규모와 교육내용 1문항, 농산물 개방하에서의 농촌과 농업교육의 활성화 방안 에 관한 문항 2문항 도합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도구를 표집된 대상자에게 우송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중 늦게 도착된 것이나, 불충실한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 분석에 사용된 매수는 118매로서 39.3%였다. 분석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등이 분석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된 자료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빈도	%			평균	SD			빈도	%
근 무 기 관	농촌지도소	47	39.8	현	농촌지도소	22.8	8.7	전  공	농업분야	74	62.7
	학교	44	37.3	직	학교	28.2	11.0		비농업분야	41	34.8
	교육청	27	22.9	경	교육청	24.5	13.4		무응답	3	2.5
	계	118	100.0	력	계	25.2	11.0		계	118	100.0

## II. 본 론

### 1. 농업 및 농촌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농업계 학교와 농촌 지역 학교의 학교장들에게 근무학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선 순위에 따라 5가지를 기록하게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현재의 농촌 및 농업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모집 학생의 부족, 학생들의 학습 의욕 저하, 농촌 지역 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 부족, 졸업생들의 전공관련 취업처부족,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현재의 농촌과 농업 실태와 관련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 2. 농산물 개방에 따른 학교 교육에의 영향

농산물 개방으로 나타날 상황 변화를 5년이내와 5~10년사이의 장기적 변화에 대하여 5개씩 고르도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는 5년이내에 나타날 현상과 5년 이상 10년이내의 중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구분하고 있는 데, 학생들의 지원율 격감과, 학생들의 농업적 취업 기피 현상의 가속화, 농업교사의 의욕 저하, 학부모들의 농업 기피 현상, 농민들의 영농 의욕 감소가 대체적으로 많이 예견되는 부분이었다. 이것은 외국 농산물의 개방이 현재는 우리나라 농업의 몰락으로 인식하는 면이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았다. 즉 여러 부분에서 고르게 분포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농업 유형의 다양화와, 농촌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사회적 역할 수행의 요구가 증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농산물의 개방이 되었을 때, 당장은

농업 회피 현상의 가속화가 나타나겠지만 어느정도 지난 후에는 농업이 다양화하고, 농촌 보호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도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가 보였다. 이와 같은 점은 농촌과 농업의 문제를 개개인의 측면에서 파악하지 않고 국가적인 측면으로 파악하였음을 말한다.

개개인의 관점에서 농촌의 피폐화는 개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나 결국은 국가에 영향하게 됨을 말하며, 이와같은 점에서 개개인의 희생을 통한 농업의 개방이 농촌에 가져올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가치의 문제가 있다.

이들 이외에 나타날 현상을 학교와 교사의 측면, 교육 내용과 조직의 측면, 제도, 조직, 시설, 재정 측면등으로 나누어 5년 이내는 “단”, 5~10년은 “장”으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 〈표 4, 5, 6〉과 같다. 교육자와 학생 부분에서 발생할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농촌 인구의 이농등으로 인한 감소와 농업계 학교의 진학 기피등으로 인한 학교의 황폐화 문제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분야별 학생수나 교사의 증가와 고도의 기술 농업화가 이루어져 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후에 교육내용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뚜렷하게 다수를 차지하는 의견은 없었으나, 소득 향상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의 강화, 교육의 질적 향상, 교육 내용의 심화, 고품질 생산 유통 기술의 급속 향상등을 지적하고 있어, 전문화와 교육 내용의 심화를 모두 공통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들이 지적한 내용이 생산 기술로만 그치지 않고, 첨단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경영 및 유통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가까운 시일내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표 2〉 현재의 농업 및 농촌 지역 학교 교육의 문제점

문 제 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p
교사들의 전공 실력 부족	2( 1.7)	7( 5.9)	4( 3.4)	3( 2.5)	4( 3.4)	60
교사들의 인격적 소양 부족	2( 1.7)	3( 2.5)	4( 3.4)	2( 1.7)	2( 1.7)	40
교사들의 열의 부족	4( 3.4)	3( 2.5)	10( 8.4)	4( 3.4)	5( 4.2)	50
적합한 교사의 부족	3( 2.5)	4( 3.4)	4( 3.4)	4( 3.4)	8( 6.8)	59
학생들의 학습의욕 부족	16(13.6)	26(22.0)	15(12.6)	6( 5.1)	8( 6.8)	249
모집 학생 미달	33(28.0)	11( 9.3)	6( 5.0)	4( 3.4)	2( 1.7)	237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 부족	6( 5.1)	11( 9.3)	5( 4.2)	5( 4.2)	3( 2.5)	102
현행 교육목표의 부적절성	2( 1.7)	4( 3.4)	2( 1.7)	1( 0.8)	2( 1.7)	36
학교교육내용의 농업 및 농촌실정과의 부적합성	8( 6.8)	5( 4.2)	6( 5.0)	7( 5.9)	8( 6.8)	100
교과내용의 전문성 부족	3( 2.5)	3( 2.5)	4( 3.4)	4( 3.4)	6( 5.1)	53
교과내용이 학생들 수준에 비해 어려움			4( 3.4)	5( 4.2)	4( 3.4)	26
교과내용의 학년간, 학기간 배정과 조직 부적합				1( 0.8)	1( 0.8)	3
졸업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취업처 부족	7( 5.9)	8( 6.8)	6( 5.0)	9( 7.6)	7( 5.9)	110
졸업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낮음		1( 0.8)	1( 0.8)	4( 3.4)	1( 0.8)	16
취업생들의 학습내용 활용도 낮음	1( 0.8)	3( 2.5)	3( 2.5)	8( 6.8)	5( 4.2)	47
농촌지역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지원부족	12(10.2)	9( 7.6)	19(16.0)	13(11.0)	11(10.2)	190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7( 5.9)	8( 6.8)	6( 5.0)	9( 7.6)	7( 5.9)	110
농업과 농촌여건에 대한 매스컴의 오도된 보도		1( 0.8)		8( 6.8)	4( 3.4)	24
교육 시설의 노후화	1( 0.8)	2( 1.7)	3( 2.5)	5( 4.2)	5( 4.2)	37
학생 교육 경비의 지원 부족	2( 1.7)	6( 5.1)	5( 4.2)	4( 3.4)	8( 6.8)	65
학생 교육 시설과 설비의 부족	4( 3.4)	2( 1.7)	9( 7.6)	9( 7.6)	12(10.2)	85
학교내 인간관계의 경직성			3( 2.5)	1( 0.8)	1( 0.8)	12
기타	5( 4.2)	1( 0.1)				29
무응답				2( 1.7)	4( 3.4)	8
합 계	118(100)	118(100)	119(100)	118(100)	118(100)	1773

단  $p = (1\text{순위 응답자수} \times 5) + (2\text{순위 응답자수} \times 4) + (3\text{순위 응답자수} \times 3) + (4\text{순위 응답자수} \times 2) + (5\text{순위 응답자수} \times 1)$

비교적 긴기간인 5~10년내의 기간에도 요구되었다.

제도와 조직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의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및 농촌 교육의 지원이나 농산물 생산 시설의 현대화로 인한 국가 재정 지출의 증가를 단기간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뚜렷한 일치 경향은 보이지 않으나 이들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결과가 농촌과 농업학교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국지적인 문제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

문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부분의 응답이 농촌지역이나 농촌과 농업계 학교 모두에 나타날 현상이라는 항목에 찬성하고 있다.

### 3. 농산물 개방 시대의 농촌 지역 인력 확보 문제

농산물 개방 시대에 농촌 지역의 농업 인력은 현재로서

〈표 3〉 농산물 개방으로 미래에 나타날 현상

	5년 이내	5~10년
학생들의 지원을 격감	60(10.2)	19( 3.2)
학생들의 학습 의욕 저하	44( 7.5)	16( 2.7)
학생들의 농업직 취업 기피 현상의 가속화	74(12.5)	24( 4.1)
농업교사 수요의 감소	31( 5.3)	30( 5.1)
농업교사의 의욕 저하	62(10.5)	15( 2.5)
농업교사들의 이직율 증가	12( 2.0)	38( 6.5)
농업교사들의 타 자격으로의 변경 희망 증가	19( 3.2)	41( 7.0)
농업계 학교의 역할이 졸업장 획득의 수단으로 변화	10( 1.7)	16( 2.7)
농촌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사회적 역할 수행 요구 증대	8( 1.4)	51( 8.7)
학부모들의 농업 기피 현상 증가	69(11.7)	26( 4.4)
농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 저하와 투자의 감소	9( 1.5)	29( 4.9)
학교 폐교와 폐과, 학과 변경 급증으로 학교의 불안정 증대	35( 5.9)	45( 7.6)
농촌 지역 주민의 이농 증가	57( 9.7)	31( 5.3)
농업의 산업적 중요성 감소	26( 4.4)	40( 6.8)
농산물 수출 기회의 증가	2( 0.3)	20( 3.4)
농업 유형의 다양화	5( 0.8)	65(11.0)
농업 부문의 종사 인력 증가		6( 1.0)
농촌의 인구 증가		6( 1.0)
농촌의 상급 학교 취학율 증가		5( 0.8)
농촌 주민의 영농 의욕 감소	53( 9.0)	30( 5.1)
기타		3( 0.5)
무응답	14( 2.4)	33( 5.6)
	590(100.0)	589(100.0)

정확한 추정이 곤란하나 결국은 농촌 지역의 인력은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여 학교가 소재한 군지역의 농업 및 농촌 인력 수요와 평균 교육 년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대체로 기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군단위별로 1~2만명정도는 매년 신규 인력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응답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전국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郡당 평균 수요 인력에 전국의 군수를 곱하면 전체 농촌 지역의 수요 인력 규모가 산출될 수 있다. 즉 전국의 郡數가 1992년 3월 1일 현재 136개임을 감안할 때(한국통계연감, 1992), 5년 이내에는 매년당 370만명 정도가 필요하다. 5년과 10년

사이의 수요 인력의 감소가 예측되었다. 즉 1~5년사이에는 신규 수요 인력이 연간 평균 321만여명이 필요하나 6~10년기간에는 248만여명으로 무려 23% 정도가 감소한 실정이다. 1~5년 이내의 수요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6~10년 이후의 인구 수요는 77% 정도였다. 10년 이후는 6~10년 기간의 91% 정도로서 9% 정도의 감소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초기 5년간은 새로운 취농자 또는 농촌 신규 수요 인력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나, 그 이후는 안정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교육 수준은 농촌인과 농민의 정의에 따라 두 집단의 결과를 달리 볼 수도 있으나 교사인 경우는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였으며, 지도소와 군교육청에만 이들을 구분하여 조

〈표 4〉 농산물 시장 개방후 농업및 농촌 교육의 교육자와 학생부분에 일어날 현상

	5년이내	5~10년
농업계학교 황폐화(폐교, 폐과, 진학기피, 정부의 천시등)	13(16.7)	7(7.7)
피교육생과 교육자들의 소외감 증가	2(2.6)	2(2.2)
문화생활의 영위 감소(주거환경과 문화발전저조)	1(1.3)	1(1.1)
농촌인구의 감소(이농)	28(35.9)	4(4.4)
미경작농지의 증가	3(3.8)	
피교육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	1(1.3)	1(1.1)
농업 의욕 감퇴(피교육생의 농업포기 현상)	5(6.4)	
교육과정개편으로 농업계교사들의 과목 변경(이직자 증가)	3(3.8)	2(2.2)
교육의 전문화(전문분야별학생, 교사증가, 고도의기술농업화)	5(6.4)	22(24.2)
전업농 증가		3(3.3)
도농간의 격차 현격(이질 현상)		4(4.4)
정부의 지원 요구 증가와 경제적 지원 증가		4(4.4)
극소수 인원으로서 구성된 농촌인의 생활의 질 향상		4(4.4)
농업 유형과 기술의 다양화		4(4.4)
소수 정예 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타개책 모색	1(1.3)	4(4.4)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개발(애로증가)	1(1.3)	1(1.1)
농민의 사회적 지위 하락	2(2.6)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새로운 기술 수용 능력 저하	4(5.1)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영농 증가(시설투자, 기술향상, 규모)	1(1.3)	5(5.5)
농촌교육자의 생활보장	2(2.6)	2(2.2)
국산품 애용과 국내 산업의 육성	1(1.3)	1(1.1)
농업자체의 자생력 강화		3(3.3)
우수농산물의 수출, 우수농산물 분야에 전문 인력 증대		2(2.2)
교사의 신뢰성 감소	2(2.6)	
현대감각에 맞는 과로의 전환및 폐과	3(3.8)	
농산물의 중요성 인식		4(4.4)
농촌의 아들, 딸의 인간성 경시 풍조		2(2.2)
교사의 학생 지도 어려워짐		2(2.2)
적합한 교사의 부족(농업교사 수급계획 차질)		2(2.2)
농업계 학교의 역할이 졸업장 획득 수단으로 변화		2(2.2)
다양한 농업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지원자 증가		3(3.3)
	78(100.0)	91(100.0)

(표 5) 농산물 시장 개방후의 농업과 농촌교육의 교육내용 측면에서 일어날 현상

	5년이내	5~10년내
자동화시설을 통한 농업 생산의 강화		2(2.8)
농업계 교사 사기 저하와 전직	1(1.1)	3(4.2)
교육내용의 심화(상품포장기술, 생명공학기술, 농업경영, 질)	7(7.7)	5(6.9)
소득보다는 환경보존면에서 중시하게 됨	1(1.1)	1(1.4)
교육의 질적 향상	8(8.8)	
농업교육의 필요성 절감	2(2.2)	
소득향상을 위한 전문적 교육 강화(기술 교육)	9(9.9)	13(18.1)
고품질 생산 유통 기술의 급속 향상	7(7.7)	
농업생산학과는 줄이고 관련학과 증설	1(1.1)	1(1.4)
우위작목에 대한 도시 대기업의 하부 조직 단체화	2(2.2)	
전문 교육자의 역할 확대	5(5.5)	
특용작물 주산단지 형성(한국특성에 맞는)	4(4.4)	2(2.8)
농기계 기술 교육(수요) 증가	5(5.5)	
직판 체계의 유통 구조 구성과 판매	2(2.2)	
농민의 교육 수준 향상	2(2.2)	
새로운 소득 작목 발견	5(5.5)	
교육 내용 불실(질 저하)	3(3.3)	1(1.4)
교육의 세분화, 구조 개선		6(8.3)
지역사회기관과 농업 관련 단체가 농촌문제 협의 추진		2(2.8)
지역간 기술 교환 체계의 확립 발전이 예상됨		2(2.8)
자생조직체 중심으로 운영		2(2.8)
농업경영교육기회 증대		3(4.2)
대단위 조방 농업의 표방	1(1.1)	2(2.8)
수출 가능 작목 기술 수요 증가		2(2.8)
국제적 농업기술및 정보수요증가	1(1.1)	2(2.8)
농업구조혁신을 요한 종합기능을 수행할 조직개편요구		2(2.8)
세부작목별 농민조직 강화	2(2.2)	2(2.8)
학교 시설의 노후화(현대화, 확충)	1(1.1)	3(4.2)
UR에 대응할 교육 내용 연구(적응능력 신장)	3(3.3)	2(2.8)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생활 개선책 모색		3(4.2)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이론보다 실기위주의 개편, 독농가)	5(5.5)	1(1.4)
교육과정 재편	1(1.1)	1(1.4)
기타(1인 이하의 응답자)	13(14.3)	9(12.5)
합 계	91(100.0)	72(100.0)

(표 6) 농산물 개방후에 농업과 농촌 교육의 제도와 조직 측면에서 발생할 현상

	5년 이내	5~10년 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개편(농촌사정에 맞는 교육제도)	2(1.8)	2(2.5)
시설투자의 축소(농업에 관한 투자와 시설 감소)	6(5.5)	1(1.2)
농촌지도소의 확대와 교육기관화	3(2.8)	
농업교육의 기술적 전문화(전문과 설치)	4(3.7)	1(1.2)
수출시장을 목표로 하는 작물의 개량, 경비, 기술지원	2(1.8)	2(2.5)
농촌지역에 공업단지 조성해 도시인구 흡수(유휴인구유입)	2(1.8)	2(2.5)
복지시설(농촌문화시설 확대)	1(0.9)	3(3.7)
농촌경제 부양책 장기 계획 수립(농촌보존대책 필요)	3(2.8)	4(4.9)
재정의 규모 확대(교육의 국가 차원화, 지역특산물조직)	18(16.5)	7(8.6)
농업기계화와 교육의 강화		2(2.5)
전국적인 정보망 구축		2(2.5)
농산물의 계약 재배	1(0.9)	2(2.5)
농업교육을 국가적 정책 사업화(농촌 전문인력 양성지원)	14(12.8)	6(7.4)
임차농지 및 위탁영농회사의 증가	2(1.8)	
자발적 참여	2(1.8)	
기계화영농을 위한 농지기반조성(과학영농 기반조성, 방법)	4(3.7)	5(6.2)
각종 농업 생산 시설의 현대화(자금 지원 요구 증가)	16(14.7)	6(7.4)
농휴지 증가	2(1.8)	
농업계 학교 축소(다른 연구기관이 운영, 폐지론)	3(2.8)	3(3.7)
(실험)실습위주교육으로 전환	3(2.8)	
농민의 이직율 증가	2(1.8)	1(1.2)
안전 농산물 생산시설지원	1(0.9)	3(3.7)
농업의 영역 확대, 농민의 역할 증대(집단농장화 육성)	1(0.9)	4(4.9)
직관 유통 구조 개선	1(0.9)	3(3.7)
농업관련기관과 농과계 학교의 산학협동강화	1(0.9)	1(1.2)
농업천시풍조 팽배, 초토화, 농업이 산업으로서 기능 못함	1(0.9)	4(4.9)
소득증대 작물 및 가축의 재배와 사육		2(2.5)
현장실습(기간)의 확대		2(2.5)
환경에 맞는 농업경영지도(농업경영의 안정)		2(2.5)
세계적인 농업 생산과 유통 정보 교육의 강화		2(2.5)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지원책 강구(농고출신자의 우대)	1(0.9)	1(1.2)
기타(1개 이하의 응답 내용)	13(11.9)	8(9.9)
합 계	109(100.0)	81(100.0)

〈표 7〉 위에 기술된 결과의 유형

	빈도	%
무응답	13	11.0
우리학교만 나타날 현상	1	0.9
농촌지역 학교에만 나타날 현상	19	16.1
농업계 학교에만 나타날 현상	7	5.9
농촌지역과 농업계학교 모두에 나타날 현상	78	66.1
계	118	100.0

〈표 8〉 농산물 개방 시대에 필요한 농촌지역의 농업및 농촌분야 수요인력과 교육수준

평균(명/년)	표준오차	합계(명)	
1~5년이내	27250.534	11270.798	3215563.00
6~10년이내	21025.237	8388.592	2480978.00
10년이후	19173.686	8679.600	2262495.00
평균교육수준	농촌인	8.64년	
	농민	8.30년	

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8년 이상의 교육, 즉 중학교 3학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이 예기되는 시기에 살아가려면 필요한 교육내용은 무엇인가를 3가지만 적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농업에 관한 첨단기술내용, 국제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재배법, 컴퓨터와 통신장비취급법, 농민 의식 교육등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첨단농업에 대한 기술적 내용과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 4. 농산물 개방 시대하의 농업계 학교및 농촌 학교 교육 활성화 문제

농산물 개방 시대에 농업계 학교나 농촌 지역의 학교 교육이 활성화 대책으로 적합한 방안을 5년 이내의 대책과 5년 이후의 대책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즉 단기 대책으로는 농업에 대한 전망을 고

취시키는 방향의 선진지 견학등을 주장했고, 학급당 정원수 감축이나, 농업계 학교 졸업자의 영농 정착금 상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농업 직종의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특별코스로 설치하거나, 교육자의 다양한 자기 연수 실시, 피교육생의 수업을 견학이나 탐구중심으로 실시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장기대책으로는 영농 희망자의 영농 정착을 위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농촌 거주자의 복지 시설과 인력의 확보, 농업계 학교의 실습을 과제 중심으로 운영하여 피교육생들이 실습한 작물의 수익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이나 영농 정착자의 지원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결국은 농촌 지역의 복지적 개선이 없는 농업 및 농촌지역 교육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 이외의 농업 교육 및 농촌 교육 활성화 방안을 5가지만 기록하도록 제한한 결과는 위의 〈표 11〉과 같이 농촌과 농업 교육 시설과 설비, 여건의 획기적 보강 지원과 전국적인 전문 농업인 육성, 영농 정착 농민의 농업 사수 의식 개선과 농촌 생활 여건등의 문화적 여건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농촌인의 영농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전문화, 의식화와 함께 농촌의 복지적 측면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 5. 농업및 농촌 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

농업과 농촌 교육의 영역은 명쾌하게 분리하기가 어렵다. 다만 형식적인 구분은 있을 수 있다. 농업은 산업적 구분임에 비하여, 농촌은 지역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농업은 도시에도 있을 수 있고,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농촌인도 있으므로 양쪽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 다만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농촌이며, 그와 같은 점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그안에 농민이 있는 이상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농업과 농촌 교육의 문제 역시 복합적이고, 해결책 역시 종합적이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과 농촌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들과의 협의 과정과 설문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농촌 및 농업교육의 문제를 여기서는 인력의 확보 문제와 농촌 일반 교육의 문제, 농업 직업교육의 문제, 농촌 사회 교육의 문

〈표 9〉 농산물 개방 시대하에 농촌 지역에 필요한 교육 내용

	빈도(%)
유통	7(2.8)
직업관(영농가치관의 교육 강화)	9(3.6)
고소득 전망 작목 교육	4(1.6)
재배와 사육의 기초적 기술 습득	10(4.0)
자동화 농업에 관한 교육(영농기계화 교육)	12(4.7)
특용작물 재배법	4(1.6)
민주시민 자질(참인간 교육, 생애교육, 사회교육)	7(2.8)
각국의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세계적 동향 교육	8(3.2)
국제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재배법 지도	16(6.3)
채소의 시설 원예 고급화	3(1.2)
국토보존적(조경) 기본 교육(환경 보호 교육)	4(1.6)
농산물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교육	2(0.8)
국내산 농산물 애용 국민의식 교육	4(1.6)
수익 증대를 위한 영농 방법(농한기 부업 알선)	3(1.2)
농업에 관한 첨단 기술 교육	20(7.9)
농업경제 이론 교육	2(0.8)
농민 소득 작목반 교육	2(0.8)
농촌 현장과의 연계성 있는 내용	3(1.2)
농산물 가공	9(3.6)
현장실습 및 견학중심의 교육기회 부여	2(0.8)
고장 토산물 개발 노력(생산기술)	7(2.8)
합리적인 농업 경영	8(3.2)
고등 원예 및 특용 작물 재배	3(1.2)
무공해 농산물(식품) 생산 기술	4(1.6)
UR협상 관련 내용과 대책 동향	12(4.7)
농민 의지 및 의식 교육	15(5.9)
컴퓨터및 통신장비 취급 기능(기계교육)	16(6.3)
영농 정착 의욕이 강한 전문농업인(전업농) 교육	7(2.8)
유통정보 관리 능력 교육	11(4.3)
지역에 알맞는 작목의 교육	2(0.8)
전문분야별 교육	5(2.0)
기타(1개 이하의 응답내용)	32(12.6)
합 계	253(100.0)

〈표 10〉 농산물 개방 시대의 농업교육과 농촌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장단기 대책

	빈 도	
	단기(%)	장기(%)
학급당 정원수의 감축	39(6.6)	11(1.9)
피교육생이 부족지역은 인근 지역과 공동운영	15(2.5)	16(2.7)
1개 프로그램당 편성 학급수의 제한	8(1.9)	7(1.4)
학급당 편성 규모 제한 없음	22(3.7)	12(3.4)
교육자에게 책임시간수 완화	11(1.9)	8(1.4)
교육자에게 여러가지 형태의 자기 연수 실시	32(5.4)	20(3.4)
농촌근무 교육자에게는 주택 구입등의 특전을 부과	16(2.7)	10(1.7)
국민학교 4학년 이상에는 교과목 전담제를 실시	25(4.2)	28(4.7)
농촌근무교육자는 일반 교육자와는 독자적 방법으로 채용	12(2.0)	18(3.1)
피교육생의 생활지도 전담제를 실시한다.	6(1.0)	4(0.7)
과목별 전공 교육자 채용 원칙을 철저히 지킴	20(3.4)	23(3.9)
교육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한 대학원 진학 지원	8(1.4)	20(3.4)
고참교육자들의 대우를 동일 수준의 기업체수준으로 증액	21(3.6)	12(2.0)
피교육생이나 졸업생들과 교육방향을 논의할 정기 모임 구성	15(2.5)	8(1.4)
농고를 그 지역의 농촌 지도소와 통합 운영	9(1.5)	27(4.6)
농고의 소속을 교육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	8(1.4)	14(2.4)
신규 농업 직종의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특별코스로 설치	32(5.4)	26(4.4)
각급학교에 농촌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17(2.9)	21(3.6)
농업계 학교 졸업자의 영농 정착금을 상향 지급	46(7.8)	21(3.6)
피교육생들의 수업 지도를 견학이나 탐구 중심으로 실시	32(5.4)	19(3.2)
농업계학교 실습을 과제중심으로 지도하며, 실습작물의 수익반도록	20(3.4)	31(5.3)
농업계학교 교과목 조직을 학과 단위가 아닌 관련과목 통합코스로	20(3.4)	23(3.9)
농업교육의 목표를 중견자영업인보다 농업관련직 취업을 우선하도록	8(1.4)	11(1.9)
지역사회문제나 농산물수출등에 학교가 지역사회에 조연체제 형성	4(0.7)	24(4.1)
학교 소개 행사를 자주 개최	3(0.5)	2(0.3)
피교육생들에게 농업선진지 견학으로 농업의 전망 인식제고	42(7.1)	19(3.2)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위해 과외 활동 실시	17(2.9)	8(1.4)
상급학교 진학을 제고		3(0.5)
피교육생수 부족에 관계없이 면지역, 군지역당 일정수 학교 유지	8(1.4)	6(1.0)
학교 인근에 공단 조성으로 농촌 주민의 취업 장려	11(1.9)	17(2.0)
농촌거주자의 복지 생활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설비, 인력 확보	12(2.0)	35(5.9)
영농희망자의 영농정착을 위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29(4.9)	30(5.1)
농산물의 수출 지원을 위한 단체와 인력 양성	13(2.2)	21(3.6)
지역농업과 농촌 생활에 대한 홍보인력 확보와 양성	3(0.5)	4(0.7)
기 타		2(0.3)
무응답	6(1.0)	29(4.9)
합 계	590(100)	590(100)

〈표 11〉 농산물 개방 시대에 기타 필요한 농업 및 농촌 교육 활성화 방안

	빈도(%)
정부의 농촌의 자립 지원 최대화	3(1.6)
고도의 농업 기술교육을 통한 질 높은 농산물 생산	4(2.2)
영농 정착 농민의 농촌 사수 의식과 생활 수준 유지 개선	15(8.1)
농촌지도소의 활성화, 농촌지도사의 기술 지도, 자금 지원	5(2.7)
UR하에서 경쟁력있는 분야 개발 연구, 지도	8(4.3)
농촌 청소년들에게 영농 교육 기회 부여	4(2.2)
지역별 영농 조직의 활성화	3(1.6)
농과계 교육기관의 시설 개방	2(1.1)
정착의욕 갖도록 정신 교육 강화	3(1.6)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 자금 확대(영농후계자 10억이상)	8(4.3)
전국 단위의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	14(7.5)
농업학교 졸업자의 농업 행정 기관 근무 특전 부여 겸업실시	3(1.6)
외국 농산물의 규제 강화로 국내 농산물 경쟁력 강화	6(3.2)
졸업후 지역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 계속교육프로그램 개설	4(2.2)
농촌및 농업교육 시설과 설비,여건의 획기적 보강 지원	17(9.1)
컴퓨터(시설자동화) 농업	2(1.1)
농업 관련 기관의 통폐합과 단일화	2(1.1)
산학 협동 체제 강화(지도소와 학교간의 역할 분담)	8(4.3)
농산물 유통 체제의 개선 지원	6(3.2)
농촌의 복지 제도 개선(교육, 생활개선, 환경개선등) 지원	8(4.3)
생산비 절감 교육	2(1.1)
학생과 교사, 농민들의 선진 농업국등의 견학 확대 실시	4(2.2)
지역별, 권역별 단지화 교육 강화	2(1.1)
생산 기술, 유통 기술의 교육 실시	4(2.2)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인식 교육	3(1.6)
농업학교 농장의 자율 운영(기능직 직원 배치로 운영)	5(2.7)
농촌및 농고 출신자의 취업과 동일계 진학의 우대 방안 강구	8(4.3)
농산물 품질 향상 교육	3(1.6)
각농고에 위탁 영농 회사 설립케하고 졸업생의 취업 지원	2(1.1)
실과 교사들의 우대와 복지 방안 강구(중학교 교사 포함)	4(2.2)
우수 농업 교사의 확보	3(1.6)
농업계 학교 생산물 불입금제 폐지	2(1.1)
학급 정원 하향 조절	2(1.1)
지역별 특수 작목 재배의 권장과 국가의 수출 지원	2(1.1)
기타(1이하의 응답항목)	15(8.1)
합 계	186(100.0)

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농촌 인력의 확보 문제

농촌인의 신규 인력 확보는 두가지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취농 인력의 문제와 일손 부족의 문제이다. 이 중 일손 부족의 문제는 영농 기계화와 위탁 영농 회사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탁 영농 회사의 가동률이 낮다는 점이 한계이고, 이 역시 신규 인력의 확보가 문제이다. 최근에 농업계 고등학교는 여러가지 농업 관련 학과가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학과에서 양성하고 있는 직업 인력을 농업 인력으로 포함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농산물 시장 개방의 물결은 농산물의 수입과 수출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이들을 지원할 인력의 양성 역시 농업 부문에서건 그외의 부문에서건 공급되어야 한다. 농촌 인력의 확보는 그러므로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기존 농촌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과, 신규 취농 인구의 확보 대책이 될 것이다. 신규 취농 인구의 확보는 도시나 농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농 기회 제공이다.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농업 관련 교육의 제공과 그를 통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수료자에게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적, 자금적 지원을 정착시까지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정책은 현존 농촌 인력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여 농업교육 이수자나, 생산 기반을 보유한 영농 희망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존 농촌 인력의 유출 방지 대책은 농촌 지역의 복지적 부문의 개선과, 농업의 영위를 통하여도 성공 가능성이 있고, 농촌에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함이 필요하다. UR이 통과된다면 일차적으로 관세화 이외의 해외 농산물의 수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결국은 국제 경쟁력 있는 작목의 개발과 기술 지도 및 유통, 수출등을 지원하는 방안외에는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수출 농업에 대한 지원과, 유통과 가공등의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부문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 대한 직업 인력의 양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농촌 일반 교육의 문제

농촌 일반 교육의 문제는 초,중,고교의 일반 교육을 지칭한다. 농촌 교육의 문제는 사회 교육과 직업 교육 및 기초 교육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촌 일반 교육의 분야는 여기서 기초 교육의 부분이다. 농촌지역의 초,중,고에서 예측되는 현상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지역 학교의 모집생 미달 현상이고, 그로 인한 학급과 분교의 폐쇄 문제이다. 학생수의 급감으로 나타난 학교의 폐쇄나 폐과는 근본적으로 농촌의 교육 기회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는 점이 있다. 소규모 학교가 갖는 점은 인간관계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불리점도 있으나, 보다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고, 학생당 교육비가 증가되어 불리한 대신에 잇점도 있으므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용우, 최준열, 조준래, 1992). 농촌학교의 통폐합은 경비 절감을 위한 정상 규모의 학급 유지 대책이나, 어차피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한, 경비 절감만을 내세운다면, 농촌 학교의 지속적인 통폐합이 이루어 질 것이고, 농촌지역의 학교는 더욱 감소하여 교육상의 불리점 때문에 농촌 인력의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수의 규모와 거리 및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지역 농촌인의 학교 유지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함이 필요하다. 학생수의 규모는 전체 학생수가 60명 정도이하인 경우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함도 한 방안이다. 통합시는 벽지 학교 교사들에 대한 복지적 측면의 지원과 수당 제공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먼 경우는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통합시켜서 폐지한 학교의 시설은 지역 주민의 정보 센터등의 공공 시설로 운영함이 좋다. 학교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자금 지원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농촌 학교의 경우는 합리적 경영이라는 측면의 접근보다는 불리한 지역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부등의 일부 부서에서 검토한 적이 있던 지역 단위의 우수학교의 집중 육성 문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이와같은 대책은 다른 학교의 희생물 통한 집중 육성이 되지않도록 함이 필요하며, 교사의 인사나 학교 운영면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농업 직업 교육의 문제

농업 직업 교육의 문제는 농업계 학교의 교육문제와 농

업직 인력 양성 분야와 관련을 맺는 분야이다. 농업 관련 직에 대한 교육은 자영자 양성의 측면과 관련 분야 산업 인력의 양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농업계 학교는 명목상으로는 자영자와 관계적 인력의 양성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대체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영자 양성 부분이었다. 그러나 자영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저하로 최소한의 인력 확보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인력 교육을 놓고 지원자 교육과 함께 사회인이나 도시민들 중 농업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직 교육을 농촌지도소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함이 필요하다. 특히 영농 기반이 부족하나 취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영농 자금의 지원과 사후 교육이 이루어지는 체계로의 운영이 필요하다. 관련 부서를 농수산부로 옮기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잉여에 의한 대책이 곤란하고, 학교 성격상 교육부의 소속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농수산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농업계 학교의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필요하다. 요즘 대부분의 농업계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명 변경과 농업 관계과의 폐지는 인력 확보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존 농업계 학교를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산 분야의 인력도 일정 수요가 예견되고 있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영 관계 학과의 육성이 필요하다. 관련직 교육을 위한 첨단 분야의 학과와, 수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무역이나 유통 관계 과목의 개설 및 전문 학과의 설치와 농업 정보 관계 학과, 농업 생물 공학 분야의 학과들을 권역별로 2~3개 학교씩 육성하여 관련 분야의 취업을 유도하여야 한다. 자영자 양성 학과는 학생 지원 추세를 고려하여 학과들을 통합시킨 후 코스제를 두거나, 소규모 권역별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생산학과를 두는 형태로 전문화시키거나, 전문적인 농업자영자 학교를 권역별로 1~2개를 두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그 경우 이들 학교는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여 인근 지역에서 학교 지원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학교의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 관찰 등의 방법과 과제 이수 방법으로 지도한다. 특히 포장의 운영을 경영포와 실습포로 구분하여 실습포의 경우는 팀을 이루어 학생 자신들이 교사의 지도하에 자신의 과제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첨단 시설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들이 이수한 과제에서 생산한 물건은 직접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그를 통하여 영농 기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의 영농정착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영자 양성 학과인 경우는 첨단 농업과 유통 분야에 대한 견학 및 해외농업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농업교사의 문제는 현재의 학교의 학과 변경이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학과 개편과 그로인한 과원 교사의 출현 결과이므로, 신규 임용과 기존 과원 교사와의 대책을 구분하여 정리함이 필수적이다. 신규 임용인 경우는 관련직 분야등의 새로운 학과가 창설될 경우에 한하여야 하나, 교원 양성 기관의 계속적 교육과 우수 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과원 교사의 경우는 안식년 제도나 파견 제도, 명예 퇴직 제도등을 도입하여 그 기간에 대학원이나 각종 재교육 기관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농업 교사의 전직이 우려되는바 이들에 대한 신분의 보장, 수당 및 주거시설 제공등의 특전을 배려하여 유인책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요즘 학교에서 신설되는 관련학과의 교육과정과 교원 자격을 규정하며, 교재 개발을 장려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유사 학과가 있을 경우는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고려하되 교재의 편찬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거나 다시 편집한다.

의욕있는 학생들의 선발을 위하여 가급적 인원수의 확보보다는 질의 추구를 병행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농업에 대한 의욕과 애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한다. 특히 자영 관련 학과의 경우는 관련직의 취업보다도 확실한 영농 정착의 사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며, 자신들의 영농 희망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을 거친 학생들은 졸업후 농촌진흥청의 전문 기술 코스나 각종 농민교육기관에서 단기간의 연수를 받도록 한다. 단 이들 학과의 편성은 학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이 좋다. 지나치게 감소하여 다수의 학급 편성이 곤란한 경우는 학년별로 1~2개반으로 통합하되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나 흥미에 맞게 코스를 두어 공통 과목은 합하여 이수하고, 개별 과목들은 자신들의 코스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잉여 교사들은 각 코스의 담

당 과목을 담당하거나 코스 담당의 지도 교사로 배치한다.

시설과 설비의 문제는 첨단 시설을 갖추기에는 항상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본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고, 사용법이 교육되어야 하나, 일부분은 협력업체나 농장들의 견학이나 실습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는 2~3개 군을 광역으로 묶어서 1개 학교에 집중 지원하여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 라. 농촌 사회 교육의 문제

농촌 사회 교육의 주대상은 농촌 성인과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며, 농촌 유아 대상의 교육이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지도소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농협이나 각종 단체등에서 직원 교육이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으나 이들의 규모나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진흥청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농민들의 전문 기술 교육은 2~3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으로 이루어지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최근과 같이 농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진 상태하에서는 영농 의욕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농촌 사회 교육은 농촌의 생활 여건 개선 문제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가르치되 성인 여성인 경우 학력이 낮으므로 예견되는 기능적 문맹의 탈피도 관심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 영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발된 영농 후보자들의 사후 지도와 교육을 농업계 학교와 농촌지도소의 협조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영자의 교육과 선발은 농업계 학교와 군수, 농촌지도소장등의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선발하고, 첨단 기술의 부분은 농촌진흥청의 교육과, 농업계 학교의 교육을 거치도록 하며, 취농후의 지도는 농촌지도소가 농업계 학교의 협력을 통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동시에 상호기관간의 협조나 견학등의 농업계 학교 교육을 위한 산학 협동 활동을 지원할 담당 직원과 예산을 배려하여 활성화시킨다. 각종 농민 교육 단체와 기관, 농민들이 쉽게 농산물 유통 정보나 각종 국제적 농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나 농업계 학교, 또는 폐교된 학교의 시설을 이용한 지역 정보 센터등에 농업 관련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농촌 사회 교육은 영농 인력에 대한 직업 교육의 성격을 띤 영농 교

육, 농기계 교육등과, 주부 대상의 농촌 생활 개선 교육 등이었으나, 복지적 측면의 강좌들도 제공되고, 해외농업 정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다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계 학교에서도 농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들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 지역에 있는 농업계 학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등의 교양 강좌나 취미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취농을 목표로 하는 도시민들의 영농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들 기초적 기술을 배운 학생들중 우수자는 농촌 진흥청등 전문 기관에서 전문 작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 영농 정착을 지원하도록 한다. 농군학교등의 시설을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데 활용함도 필요하다.

### Ⅲ.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 학교와 농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과 농촌 교육이 일차적으로는 농업을 산업으로 가진 농촌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농민이라는 계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농민이 영농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의 투자를 충실히 한다고 하더라도 수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의 인구하에서는 여전히 학생수 격감의 문제는 일어날 것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투자되는 재원이나 인력은 점차 감소되어 질 수 밖에 없다. 농촌 지역에 산다는 것이 농민들에게 여러가지 생활을 해나가는 데 불리한 곳이고 그러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한 농촌 지역의 학교에 배치되는 교사들의 의욕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청년이 가까운 교사나 승진을 위하여 잠시 들리는 교사들이 농촌 학교의 교육에 관여되는 한 여전히 모든 면에서 불리한 농촌학교의 교육 조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농촌에 거주하는 것이나 농업을 영위함이 생활하는 데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농촌 지역의 복지적 투자를 늘려야 하며, 농민의 활로를 지원해주어야 하고, 현재의 농업 종사자가 더 이상 농촌을 등지지 않도록 농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되어

야 한다. 또한 농업을 경제적 이익의 다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유지하거나,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초 식량이라는 비경제적인 측면의 기여점을 인정하여 농촌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그일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대신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농촌이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여건이 농촌에 있는 것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농촌은 존재하여야 하며, 농업 역시 존재하여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역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농촌 교육의 체제와 농업 교육의 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한 데, 교사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우수 교사의 확보 및 양성, 학생들의 의욕과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확보, 지원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은 교사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농업계 학과의 개편과 폐지는 의욕있는 교사들을 다른 과목이나 분야로 유출을 장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우수 교사나 열의가 있는 교사들은 계속 확보되도록 학과의 개편을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동의가 선행되도록 한다. 우수교사들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의 증액이나, 자격 갱신이나 희망 학교 배정시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한다. 해외 연수 기회의 부여등과 파견 근무, 명예 퇴직등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외의 교사들에게는 자격 연수를 부여하여 자격의 변경을 유도한다. 또한 교사들의 활발한 자기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원이나 연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준다. 우수 교사의 확보와 양성은 일차적으로 교원 양성 기관이 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우수 교사의 양성이 사범 교육 기관의 몫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교사의 임용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우수한 교사 자원의 배출외에는 농업교육과등이 관여할 역할이 없다. 그러므로 농업교육과 출신의 전원 임용이나, 아니면 우수 졸업자의 교원 임용 보장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농업 교사에 관련된 자격 분야를 새로 생기는 학과 분야를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 정보나 농산물 유통, 생물 공학등의 자격 신

설이 필요하다. 교원 교육 기관 우수 졸업자의 임용 보장은 학과 졸업생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전국 대학들의 순수 취업률이 평균 40% 정도는 되고 있으므로 그 정도 수준의 임용은 매년 있어야 한다. 물론 이외에도 경쟁 시험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양성된 우수 인력이 다른 부분으로 유출됨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수 졸업자의 추천을 통한 임용과 경쟁 임용 제도를 두어 추천 채용과 경쟁 시험의 두가지 경로로 교사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촌지역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분야는 농업계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논할 수 있다. 농업 분야의 신규 인력 수요가 있는 부분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단기 과정을 개설하여 타분야 과잉 인력의 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진흥청등과 같은 농업 관계 기관들이 자영하는 농민들의 사후 기술 지도와 재교육을 맡고, 신규 인력의 양성은 농업계 학교와 농촌진흥청, 각종 농민교육기관등이 주축이 되어 실시함이 필요하다. 지원 체제의 정비 문제는 농업계 고등학교의 주관 부서 이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데, 소속 부서의 이관보다는 양쪽 부서의 협력으로 보다 충실한 교육을 이룸이 낫다고 보여진다. 해외 농업과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농업계 학교와 농촌지도소에 정보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군 교육청이나 지도소를 지원 부서로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영농 정착자의 선발에 있어서도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마치고, 농촌진흥청이나 각종 농민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 기술 교육을 이수한 성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적 요

이 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농산물의 개방 시대하에서 농업과 농촌 교육이 어떻게 하여야 활성화될 수 있는가의 방안 모색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사 방법과 문헌 연구,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 기법이 이용되었다. 농업계 학교와 농촌 학교 교육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은 학생수 부족, 학습 의욕 저하, 학생 교육 시설과 설비의 부족, 농촌 지역 교

육 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등이 일차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였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후에 나타날 현상은 학생들의 지원율 격감과 농업직 취업 기피 현상 가속화, 농업교사의 의욕 저하, 학부모들의 농업 기피 현상 심화등이 나타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유형의 다양화, 교육 내용의 심화나 전문 기술의 교육, 전문 교육자의 참여등을 통한 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파악되었다. 농업 부문에 대한 재정의 규모 확대, 농업교육의 국가적 정책 사업화, 각종 농업 생산 시설의 현대화등이 당장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촌과 농업 분야 인력의 감소 쪽은 단기적으로는 급감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완만히 감소하는 안정된 형태를 보여 농업 담당 인력 교육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농산물 개방 시대에 필요한 교육 내용들은 농업에 대한 첨단 기술 내용과 국제 경쟁력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재배법의 교육, 컴퓨터 및 통신 장비의 취급 기능등의 기계 교육, 농업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르칠 교육등이었다. 농촌 교육과 농업 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단기적으로는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이나 영농 정착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복지 부문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결과를 통하여 농업 및 농촌 교육 활성화 대책을 농촌 인력의 확보 문제, 농촌 일반 교육의 문제, 농업 직업 교육의 문제, 농촌 사회 교육의 문제로 구분하여 대책을 제시하였다.

### 참 고 문 헌

1. 姜大求, 農業系 中等學校 敎員의 資格 分野 調整에 관한 研究, 學術진흥재단 연구비 보고서, 1992
2. 국제경제문제연구회,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국경제, 도서출판 녹진, 1991
3. 김성수 외, 農村-農業敎育의 方向, 敎育과학사, 1991
4. 김성수 외, UR協商에 따른 農民 自助의 對應 戰略에 관한 調查 研究, 과학기술처, 1991
5. 농림수산부 통상협력1담당관실, 農業通商消息, 10~14, 19~22, 1992
6. 농어민후계자신문사, 당신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아는가?, 농어민후계자신문사, 1990
7. 농어민후계자신문사, 우루과이라운드이후 한국농업의 현실과 과제, 농어민문고, 1990
8.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91농업경영연찬교재-농산물 수출 개척 방법 중심-, 1991
9. 농촌진흥청, 일본의 농산물 수입개방화 제문제, 1990
10. 농협중앙회, "특집:개방시대의 농협의 대응", 농협연감, 1992
11. 朴正根, "농산물 수입개방과 대응책",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업문제, 한국농업경제학회, 제1회 하계공동심포지움논문집, 1990
12. 柳炳瑞, "개방 경제에 대응한 농산물 교역과 농업 개발 방향", 농촌경제, 11(3), 1988
13. 李茂根, 金洙郁, "轉換期的 韓國農村社會敎育의 問題點과 對應方案", 한국농업과학협회 1991년 심포지움 보고서, 1991
14. 이영대, 정명채, 농촌 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29, 1990
15. 이윤식, 한만길, 유현숙, 교사 신규채용 및 전보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2-32, 1992
16. 李載玉,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현황과 전망",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업문제, 한국농업경제학회, 제1회 하계공동심포지움논문집, 1990
17. 李載玉, "농산물", UR총점점:分野別 評價와 우리의 對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26, 1992
18. 이정환, 조덕래, 조재환, 경제사회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 변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 236, 1991
19. 李瓚鉉, "韓國農業의 發展 政策 方向", 한국농업과학협회 1991년 심포지움보고서, 1991
20. 임천순, 정태화, 이광호, 고등학교 직업 기술 교육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2-38, 1992
21. 전국농업기술자협회출판부, 농경저널, 1992, 3월호
22. 鄭聖鳳, "農業系 高等學校 學生 就業 現況과 展望 分析",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4), 1990
23. 鄭址雄 외 5인, "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한 農業 敎育의 方向",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1), 1990
24. 崔敏浩, 鄭址雄, 金性洙, "都-農間 敎育 文化 隔差와 그 解消 方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3), 1990

25. 趙錫辰, “축산물 수입개방과 대응책”,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업문제, 한국농업경제학회, 제1회 하계 공동 심포지움 논문집, 1990
26. 최세균, 수입자유화 효과 분석에 대한 일반 균형이론의 적용, 1990
27. 최세균, 권오복,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39, 1991
28. 崔洋夫 외 7인, UR 農産物協商 및 輸入自由化 戰略 樹立에 관한 研究,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 사업 최종 보고 C-91-1, 1991
29. 최양부, 농어촌의 구조 혁신을 위한 신농정의 추진 전략과 과제, 1992
30. 최운실, 백은순, 최돈민, 한국사회교육의 실상과 미래 전망 연구(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 RR92-23, 1992
31. 崔正燮, 權五復, 金成勇, UR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무역진흥공사 무공자료 92-55, 1992
32.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엮음, 한국농업의 위기와 재편 방향, 창작과 비평사, 1991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사업연차보고서, 1991
34. 허신행, 정안성, 김병률, 김창길, 농산물 시장 개방의 영향과 대응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0, 1989
35. 東京農業大學 日本農業を考える會 編, 21世紀農業への提言, 農林統計協會, 1992
36. 藤谷築次 編, 農業政策の課題と方向, 家光の協會, 1988
37. 賴平 編, 農業政策の基礎理論, 家の光協會, 2판, 1989
38. 山本 修 編, 農業政策の展開と現状, 家の光協會, 1987
39. 相馬厚司, “『新しい料・農業・農政政策の方向』について, じつきよう アグリフホーム 農業教育資料, No 18, 實教出版株式會社, 1993
40. 天間征, “國際化に對應した期待される農業人”, について, じつきよう アグリフホーム, 農業教育資料, No.17, 實教出版株式會社, 1992